

영화정보

사라진 거미

The Vanished Spider

Runtime: 35min

Sound mix: Stereo

Color

Aspect ratio: 1.85 : 1

Color grading: Kodak Vision3 50D

- Technical Equipment

Sony FX9

Xeen CF Lens

Hollywood Blackmagic filter

MovMax Slider

Crane car

- Release date

December 18, 2024

- Countries of origin

South Korea

- Language

Korean

- Also known as

The Vanished Spider

- Filming locations

Goyang,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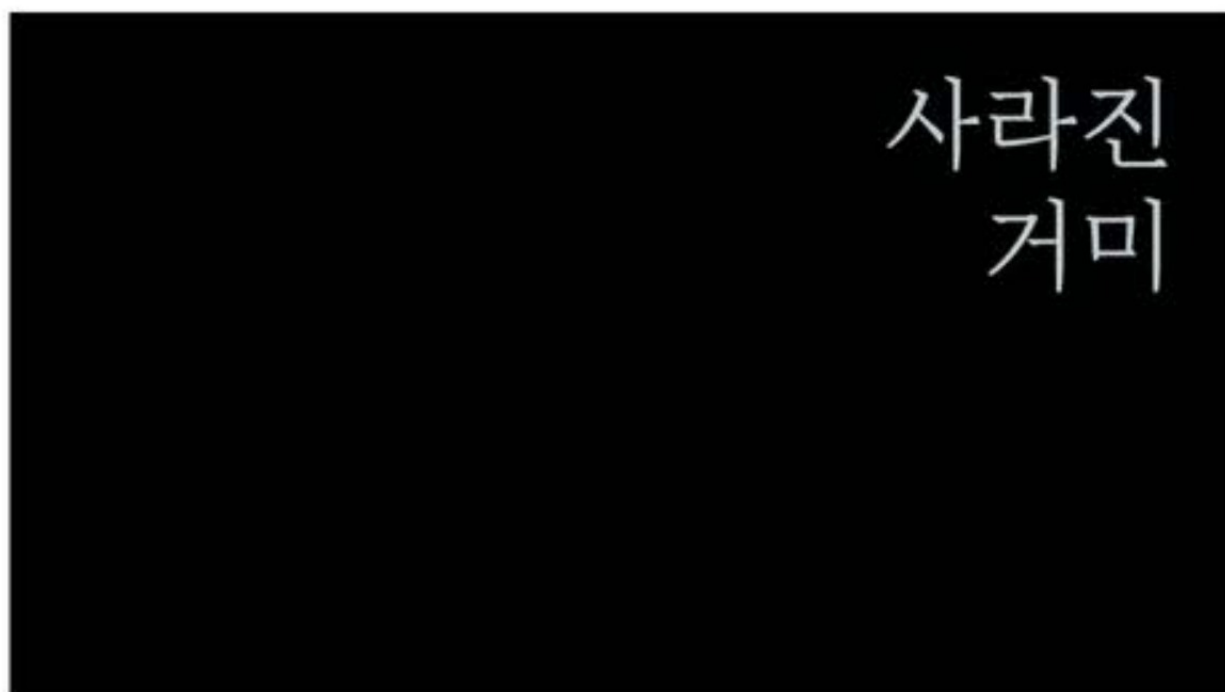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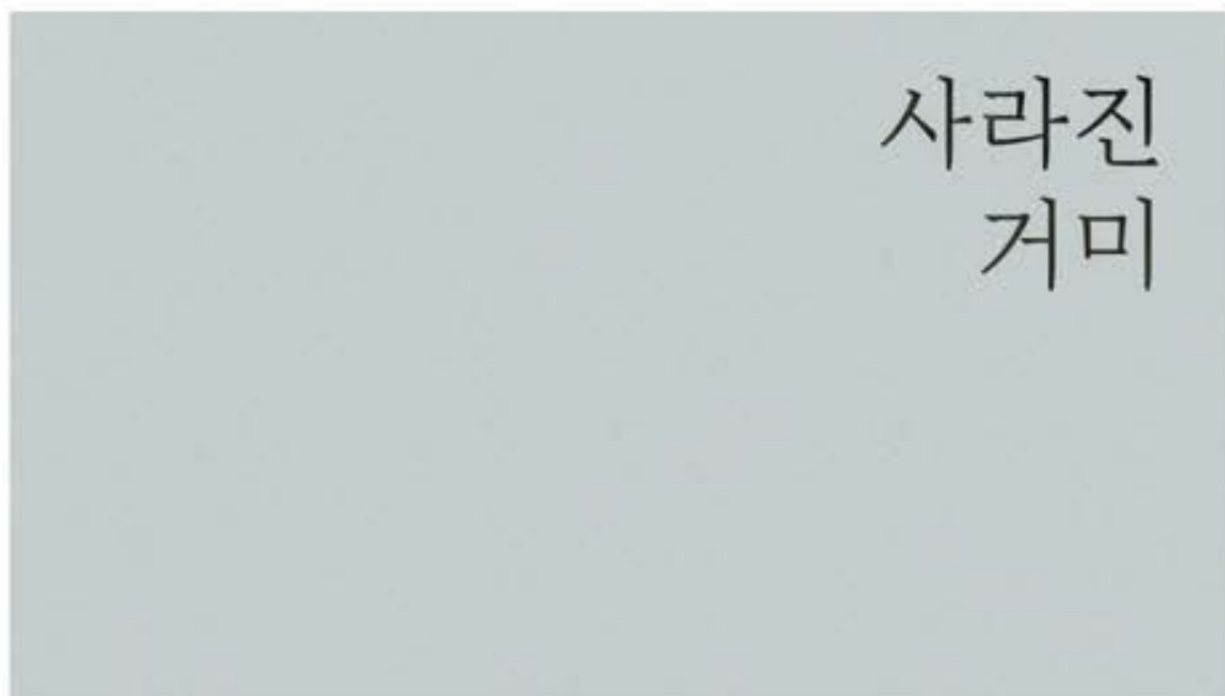
- Production

Sungkyunkwan Univ.

Wingsforest INC.



타이틀



크레딧

나오는 사람들
남자 | 김명준
여자 | 박지예
부친 | 김종협
모친 | 이은정

만든 사람들
감독 · 각본 | 서종현
제작 · 미술 | 김미현
촬영 · 조명 | 김덕용
조연출 · 음향 | 정소람

제작투자
서종현
이경애
김미현
성균관대학교
사단법인 날개숲

감사한 분들
지도교수 | 윤용아교수님
검토 | 홍윤기
장소 |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제공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프레임/쇼트

로케이션 헌팅



실내 로케이션



실외 로케이션

의상/소품



박지예 의상/소품



김명준 의상/소품

사라진 거미

초고 2024. 12. 4.
2고 2024. 12. 8.
3고 2024. 12. 10.
4고 2024. 12. 11.
최종고 2024. 12. 12.

로그라인

부모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기 위해 남자를 이용한 여자는,
남자의 고백을 듣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는다.
여자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의 선택을 직면하고,
남자는 자수하며 자신에게 다가온 재앙을 받아들인다.

시놉시스

한적한 밤, 젊은 여자는 고급 아파트로 귀가한다.
집에 오자마자 차를 내리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밝혀진 거실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남자는 교통사고로 그녀의 부모를 죽였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사과한다.
이에 여자는 담담히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한다.
부모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철저히 설계한 함정이었다.
교통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 남자는 비극의 도구에 불과했다.
여자는 보험금을 넘기며 남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한다.
돈을 챙긴 남자는 차에 여자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손전등 하나를 쥐어주고,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생히 느끼고 똑바로 직시하라고 한다.
남자는 부모를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여자는 부모가 20년간 매일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묻게 되는 괴로움이 살해 이유라고 말한다.
남자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불 켜진 곳에 있겠다고 말하고 떠나버린다.
여자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한참동안 어두운 길을 걷는다.
허름한 모텔 앞에서 남자는 담배를 피며 여자를 기다린다.
남자는 마침내 도착한 여자에게 앞으로 평생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두운 길을 걷기를 선택한 것이라 말하며 돈이 든 가방을 돌려준다.
남자가 떠나려 하자 여자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챈다.
남자는 여자를 잠깐 바라보다 떠나고 여자는 차가 지나간 길이 어두워질 때까지 바라본다.
남자의 차는 작은 파출소 앞에서 멈춘다.

작 서종현

Scene 1 / EXT. 사고 현장 - NIGHT

어두운 화면, 부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진다.
헤드라이트 앞엔 중년 부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
중년 남자가 뒤척이는 것 같다가 더욱 무기력하게 쓰러진다.
뒤이어 차가 급하게 후진을 하고, 시체를 돌아 앞으로 도주한다.

Scene 2 / INT. 지하주차장 - NIGHT

차들이 가득 들어찬 고급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20대 초반의 여자가 차에서 내려 공동현관으로 들어간다. 여자의 발자국 소리만 들린다.
엘리베이터의 디지털 층수 표시등이 조용히 바뀌며 그녀를 올려보낸다.

Scene 3 / INT. 여자의 집 - NIGHT

여자가 도착한 집은 넓고 정돈된 고급 아파트다.
입구 수납장에 벗은 코트와 가방을 놓고, 클래식 음악을 튼다.
그녀는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에 가스불을 올린다.
여자는 선반에서 찻잔을 꺼낸다.
그녀는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본다.
췌함을 느낀 여자는 스피커로 천천히 다가가 음악을 끈다.
여자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 벽 스위치를 더듬는다.
스위치를 누르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거실 소파에 낮선 남자가 앉아 있다.

남자

소리 지르지 마.

여자

(조용하지만 또박또박 단호하게)

누구- 세요-

남자

일단, 앉지.

여자

...

어떻게 들어온거죠?

남자

(단호하게)

와서 앉아.

여자

(의자쪽으로 가며)

...

원하는- 게 돈이라면...

드릴게요-

남자

(고개를 저으며)

해치러 온 게 아니야.

...

겁낼 것 없어.

여자

(의자에 앉으며)

뭐 때문에 오셨죠-

남자

박지예,

...

맞나?

여자

(인상을 찌푸리며)

전데요-

남자

괜찮아 보인다... 생각보다는.

더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여자

저를 아세요-

남자

(주위를 둘러보며) 여자 혼자 살기엔 집이 넓은데.

여자

(두 손을 불안한 듯 약간 매만지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자

아닌 거 알아.

(사이)
돌아가셨잖아.
2년 전에.

여자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기분나빠 하며)
누구시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오셨나요-

남자
너희 부모님
...
어떤 분들이셨지?

여자
네?
그게 무슨...

남자
말 그대로.
뭐... 어떤 분들이든
...
너에게 소중한 분들이겠지.

여자
(화가 난 채로)
뭘 알고싶은 거죠?
(목소리가 약간 상기된 채로)
쓸데 없는 거 묻지 마시고,
용건 없으면 나가주세요.

남자
...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셨어.
너 나이대 짝이었지.

...
안해본 게 없었어.
결혼도 쉽지 않더군.
고아라는 족쇄가 말야...
여자는 침착하게 남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기 시작한다.

남자

그래도 이제 좀 편하게 살려나 했는데...

...

그날도 평범하게 퇴근하던 중이었지.

근데 그 전날 눈이 와서 길이 얼어버렸어.

그거 아니어도 그 전부터 브레이크가 좀 이상했는데,

그날따라 특히 더 불안...했던 것 같아.

조심한다고 했는데 말야...

긴 직선도로 끝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서 나도 모르게 돌아봤다가

(마른 세수를 하며) 치고 말았어. 둘이나.

그녀의 얼굴이 무거워진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방 안에는 긴 정적이 흐르고, 여자는 간신히 입을 떼다.

여자

(긴 정적 끝에)

그게... 당신이라고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길이 허공에 머물다.

남자

비명소리를 듣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차를 세우려고 했지.

근데... 갓길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뛰쳐나온거야.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질 않았어.

그 사람들... 네 부모님이었겠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남자

그리고, 그대로 도망쳤어.

(사이)

미안하다.

잠시간의 정적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멀게 느끼게 한다.

여자

많이 아팠어요?

남자

차에 묻었던 피의 양으로 박서는...

여자

아뇨, 당신 말이에요.

남자

무슨...

여자

저는 당신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경찰 말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던데,

숨어다니는 것도 불편하겠어요.

...

아파하지 마세요.

또 다른 의미의 정적이 흐른다.

그 순간 주전자 냄비에서 다 끓었다는 소리가 울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덕션의 불을 끄고, 냉장고에서 난데없이 큰 보스턴백을 꺼낸다.

여자는 가방을 꺼내 조리대 위에 놓은 뒤, 조리대 아래서 봉투를 꺼낸다.

가방을 열어 돈을 한 움큼씩 소분하는 여자.

두 번 소분하고 나서 잠깐 생각하더니 소분한 봉투를 통째로 다시 보스턴백에 넣는다.

그러더니 여자가 보스턴백을 들고와 남자와 여자 사이 소파 위에 둔다.

남자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방을 바라본다.

여자

이건 당신 몫이에요.

남자

(당황하며) 무슨 뜻이야?

여자

말 그대로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여자

부모님이 돌아가신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남자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

그 도로요.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저는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도로를 갈아 얹는걸 봤어요.
아스팔트 아래 열선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죠.
그런데 마침 눈이 오더라고요.
원래 눈이 녹았어야 하는 길인데, 그대로 도로가 얼어버렸어요.
급경산데...
잘됐다 싶었어요.
저는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척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두 분은 나를 구하려고 본능적으로 도로로 뛰쳐나왔고요.
그러실 건 내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

(일그러진 얼굴로) 뭐?

여자

일단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을거예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그 도로를 지나가는 그 누구였어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쳐나가는 순간, 결과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했던 모든 걸 얻었죠.
부모님을 벗어나게 됐으니까.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여자를 바라본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묻는다.

남자

어렸을 때, 거미가 들어있는 채집통 하나를 사달라고 떼를 썼지.
두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한 마리가 없는거야.
채집통을 탈출했나 싶어서, 후레쉬를 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안나오더라고.
남은 한 마리가 잡아먹었나 잠깐 의심을 했었지.

그러다 2년을 키웠나?
갑자기 채집통 안에 갇힌 거미가 불쌍해보이는거야.
그래서 채집통 문을 열어줬어.
그리고 그냥 잠들었었지.

여자
(궁금한 얼굴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남자
...
그건 말이야...
...
지금이라도 후회한다고 말해.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듯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여자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 가방 안의 액수가 충분친 않겠지만, 이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본다.

Scene 5 / INT. 지하주차장 - NIGHT

남자는 차에 돈가방을 챙긴 뒤 여자에게 가자고 한다.

남자
가자.

여자는 머뭇거리다 차에 오른다.

Scene 6 / EXT. 사고현장 - NIGHT

어두운 화면, 부감, 차가 멈춰 선다. 사방은 고요하다.
헤드라이트 앞 도로엔 핏자국이 굳어있다.
운전석이 먼저 열리고, 남자가 먼저 일어서 조수석을 바라본다.
여자가 조수석에서 나와 일어선다.
남자는 조수석으로 돌아가 여자의 팔을 잡아채 핏자국 앞에 여자를 데려다 놓는다.

여자

왜 이래요. 이거 댁요.

남자

똑바로 봐.

여자

왜 이러는 건데요.

남자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있는 그대로 직시해.
그거부터 해.

여자

싫어요. 댁요.

남자

나는,
부모 없이 보낸 세월이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말 괴로웠던 건 부모가 없다는 그 사실! 그 자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
니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여자

그래서 내 손으로 없었어요.
그러는 당신은,
매일같이 끔찍한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는게 어떤 건지 알아요?
지옥같은 집구석에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억울함과 분노가
나를 옥죄고 숨을 못쉬게 만드는 그 고통을 가늠이나 할 수 있어요?
(사이)
난 절대 안돌아가요. 죽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나는 이제 알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딜 돌아간다고 그래요?

남자

아니, 내가 보기에
너는 그들만이 아니라, 너까지 죽인거야.
도대체 뭐가 널 이렇게까지 만든건데?

여자

...
섹스요.

남자
(잘못 들었다는 듯)
뭐?

여자
난 그 더러운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 매일 밤마다 부모가 미친 듯이 물고 빠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내가 있는 건 아랑곳 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내는 그 괴성을 들어봤냐고요.
매일같이 견뎌가며 20년을 살았어요.
그런 부모를 죽게 만든 것도, 그걸 감내해야 하는 것도 나라고요.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린다.

여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당신도 좋아하죠? 그놈의 섹스.
(결연한 목소리로)
그 소리는 매일 밤마다 나를 지웠어요.
(다른 세계로 가는 것처럼)
그들만으로 완전한 세계.
거기에 나는 왜 존재해야 했을까?
나는 그 세계의 부산물에 불과한걸까?
그 소리는 내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울림이었어요.

...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가 태어난 이유를 끝도 없이 물었어요.
생명의 잉태가 이리도 징그러운 일인가.
그리고 나도 저런 짐승같은 짓거리의 찌꺼기라는걸 알고나서부터
내 존재가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한거예요.
다섯 살 때부터...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남자는 말을 잊지 못하고 할 말을 생각하는 듯 여자를 바라보다 트렁크에서 손전등을 꺼내 여자에게 건넨다. 여자는 손전등을 받는다.

남자
(운전석에 타며) 불빛이 보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겠어.

차가 여자를 두고 떠난다. 차의 리어라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여자는 차를 바라본다. 주위가

어두컴컴해지자 여자는 손전등을 켜다. 그리고 꺼봤다가, 다시 켜다. 여자는 손전등을 들고 길을 걸어간다. 갈 길이 멀다. 손전등의 불빛이 멀어지다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걸음을 비춘다. 그날 밤 걸어가며 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눈에 담으며 걸어간다. 저 멀리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보인다.

Scene 7 / EXT. 모텔 앞 - NIGHT

남자는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다. 남자가 기대어 서있는 차는 모텔 앞에 서 있다. 남자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연기를 바라본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온다. 여자가 왔다. 남자는 뒷좌석에서 돈가방을 꺼내 여자 발 앞에 떨어뜨린다.

남자

가지고 가.

남자가 말을 마치고 떠나려 하자, 여자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챈다. 여자는 혼자 너무도 무서웠다는 얼굴로, 나를 지켜줄 수 없겠냐는 얼굴로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는 담배를 든 손으로 여자의 손을 풀어낸다.
여자가 재차 팔목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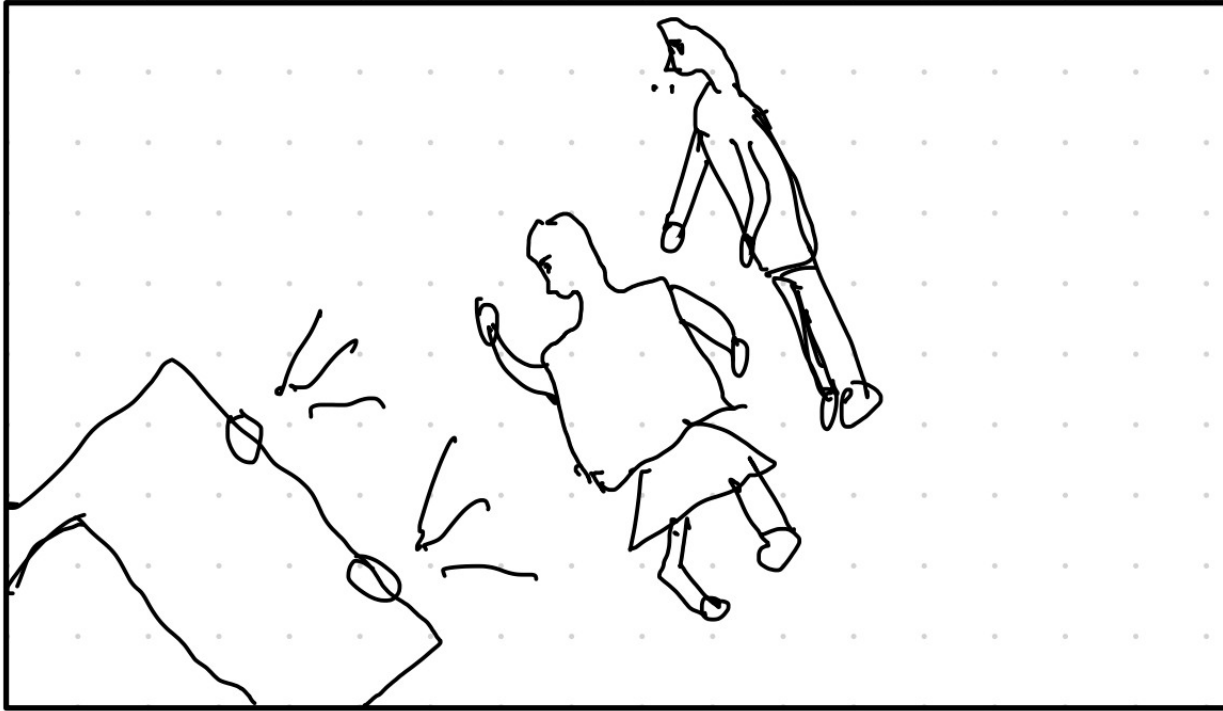
여자

거미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말해줘요.

남자는 여자의 팔을 다시 풀어내고 차에 탄다.
여자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남자가 탄 차가 출발한다.
여자의 시선이 걸리는 도로의 끝에 남자의 차가 잠시 멈춘다.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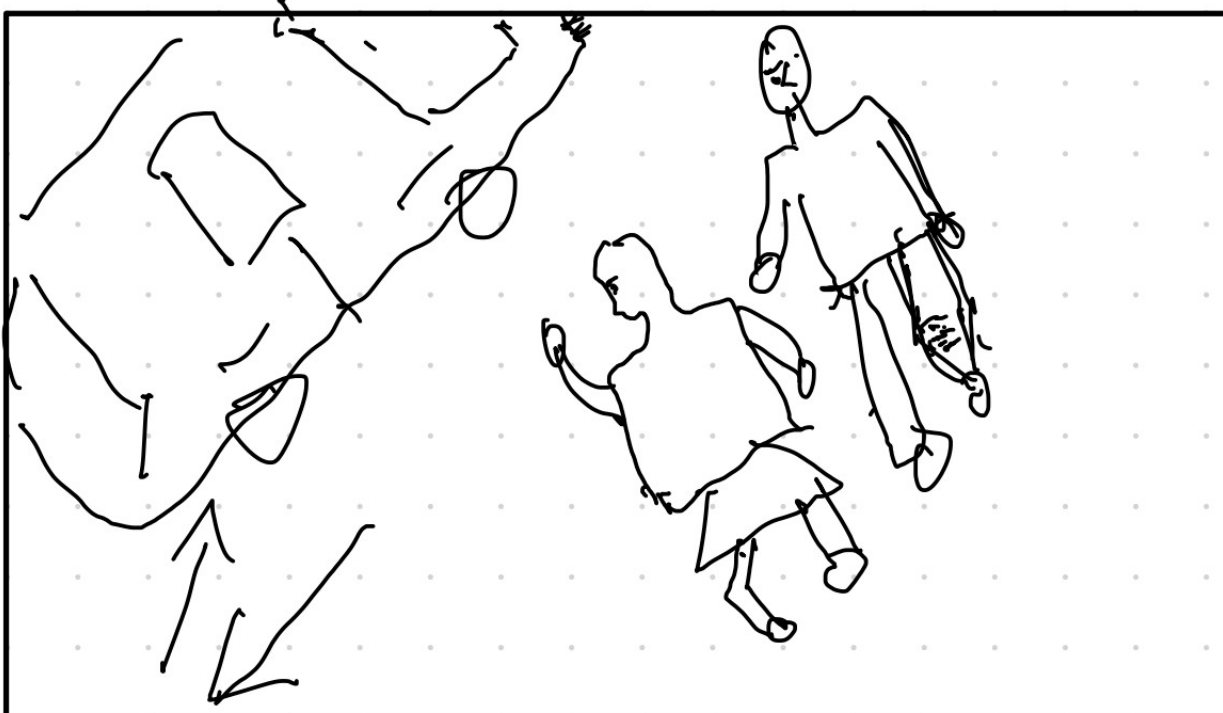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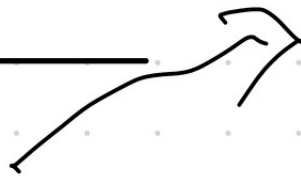
1-1



Scene 1 / EXT. 사고 현장 - NIGHT

어두운 화면, 부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진다.

헤드라이트 앞엔 중년 부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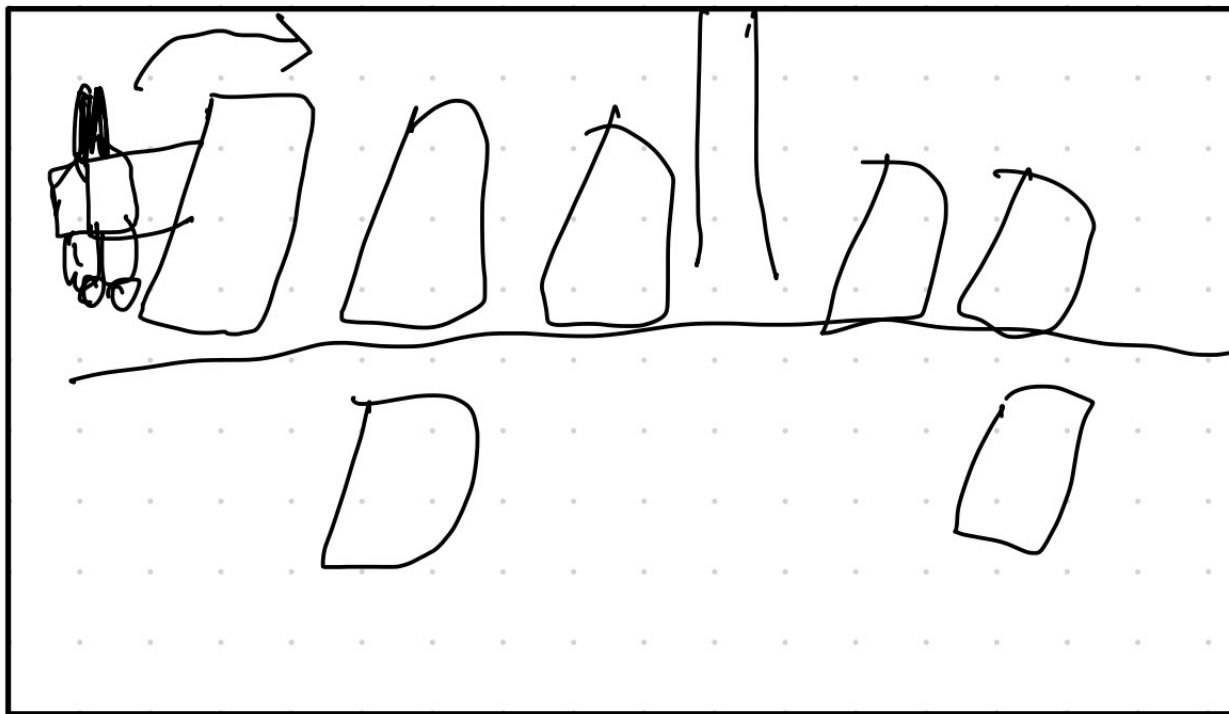


중년 남자가 뒤척이는것 같다가 더욱 무기력하게 쓰러진다.

뒤이어 차가 급하게 후진을 하고, 시체를 돌아 앞으로 도주한다.

01:30 ~ 02:30

2-1 (FS) 지하주차장



Scene 2 / EXT. 지하주차장 -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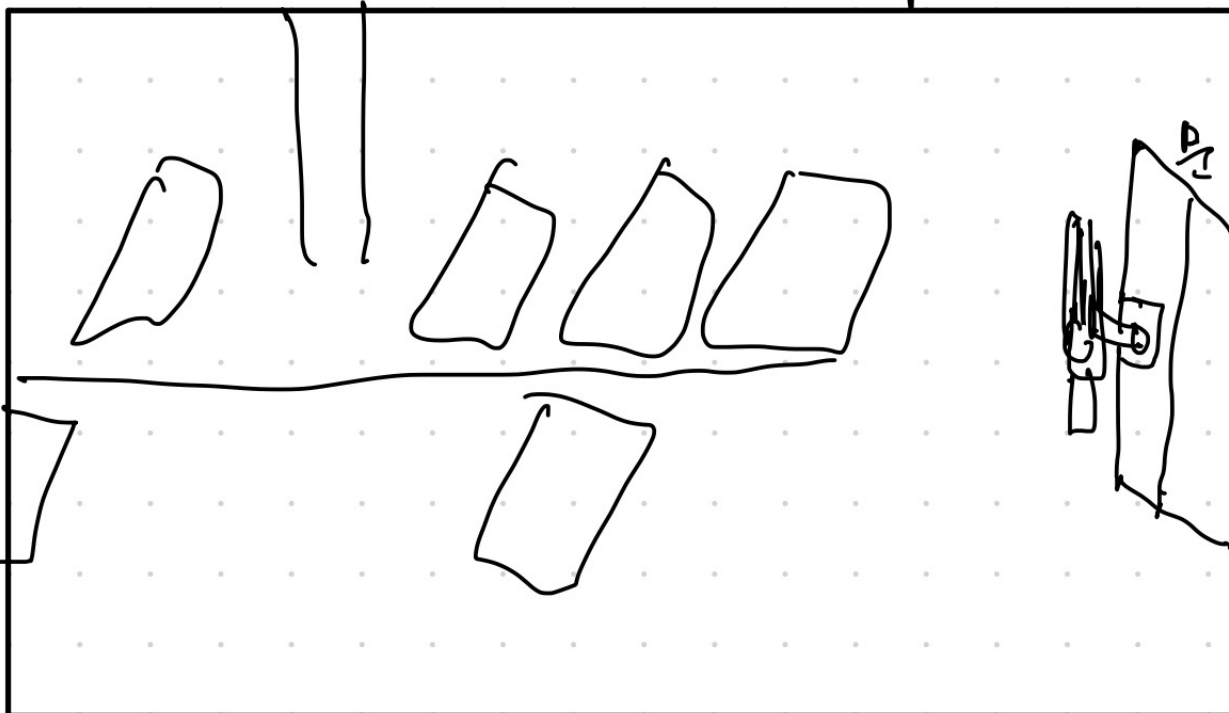
차들이 가득 들어찬 고급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20대 초반의 여자가 차에서 내려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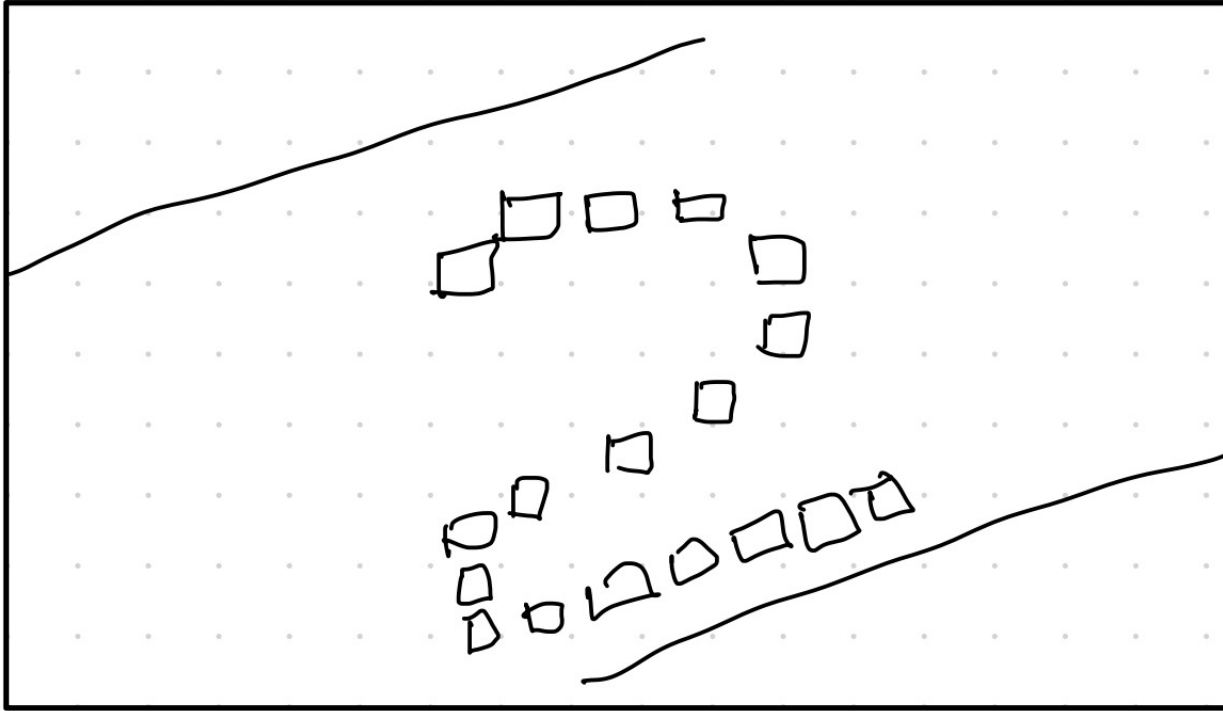
여자의 토각이는 구두 소리만 들린다.



~~Handwritten text:~~
~~Handwritten text:~~
~~Handwritten text:~~
Pan?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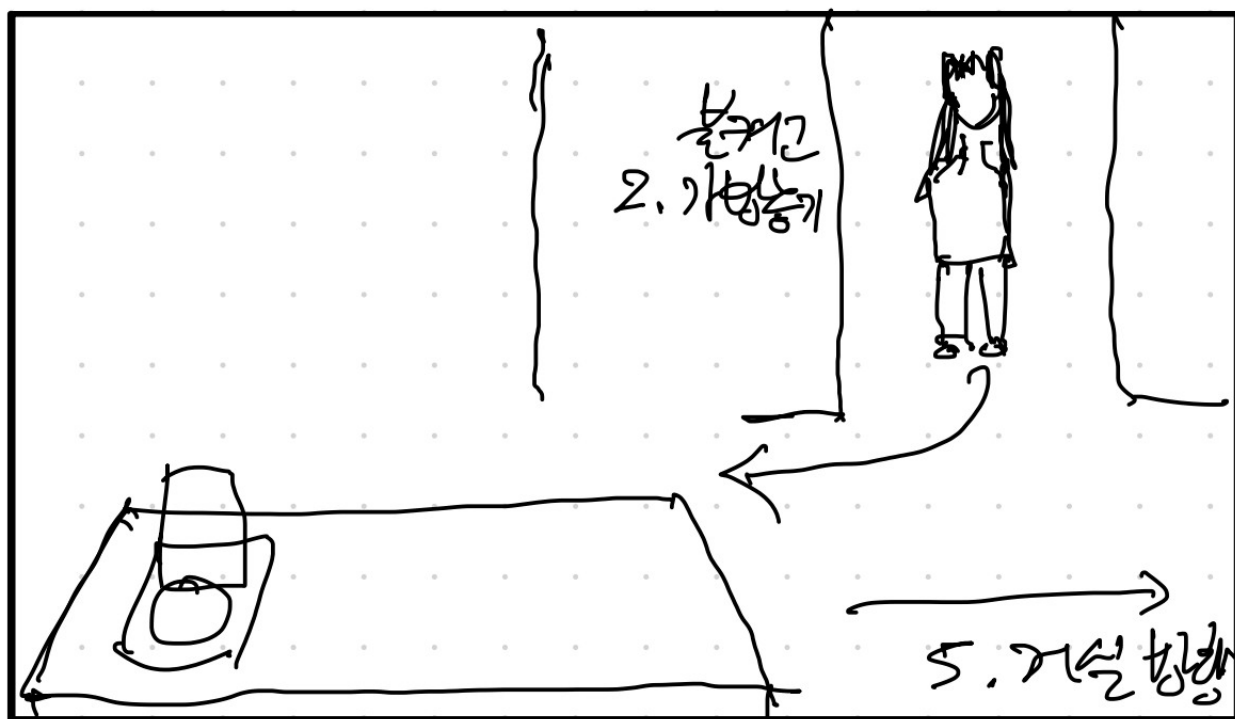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의 디지털 층수 표시등이
조용히 바뀌며 그녀를 올려보낸다.



3-1

1. 욕망기



Scene 4 / INT. 여자의 집 - NIGHT

여자가 도착한 집은 넓고 정돈된 고급 아파트다.

입구 수납장에 벗은 코트와 가장을 놓고 익숙한 동작으로 주방으로 간다.

그녀는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 냄비에 가스불을 올린다.

주전자에서 점점 김이 올라오는 동안 여자는 선반에서 찻잔을 꺼내며 짧은 한숨을 내쉰다.

그 순간, 집 안의 정적이 너무 깊게 느껴진다.

그녀는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본다. 거실과 주방 사이의 어둠이 유난히 무겁다.

2. 인덕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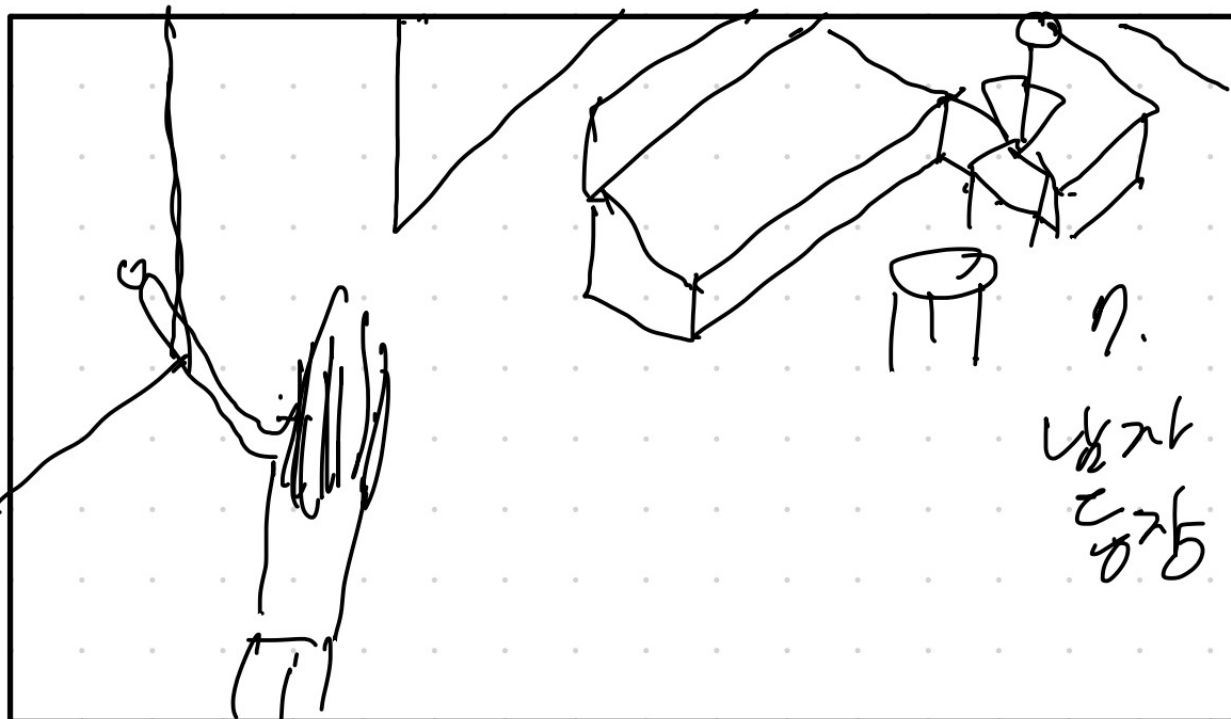
4. 찻잔

음식이기

주전자 끓이기

꺼내기

3-1 (Pen)



여자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 벽 스위치를 더듬는다.

스위치를 누르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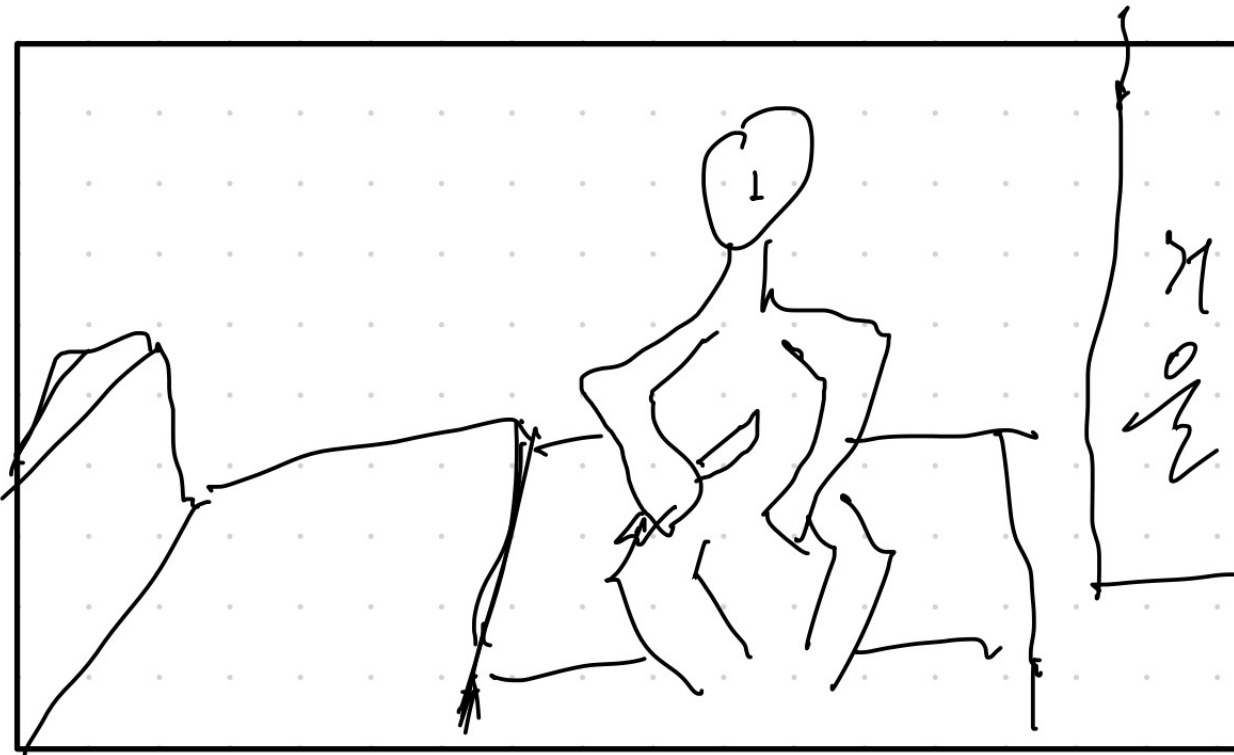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얼어붙는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자가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다.

6. 불켜기

7. 남자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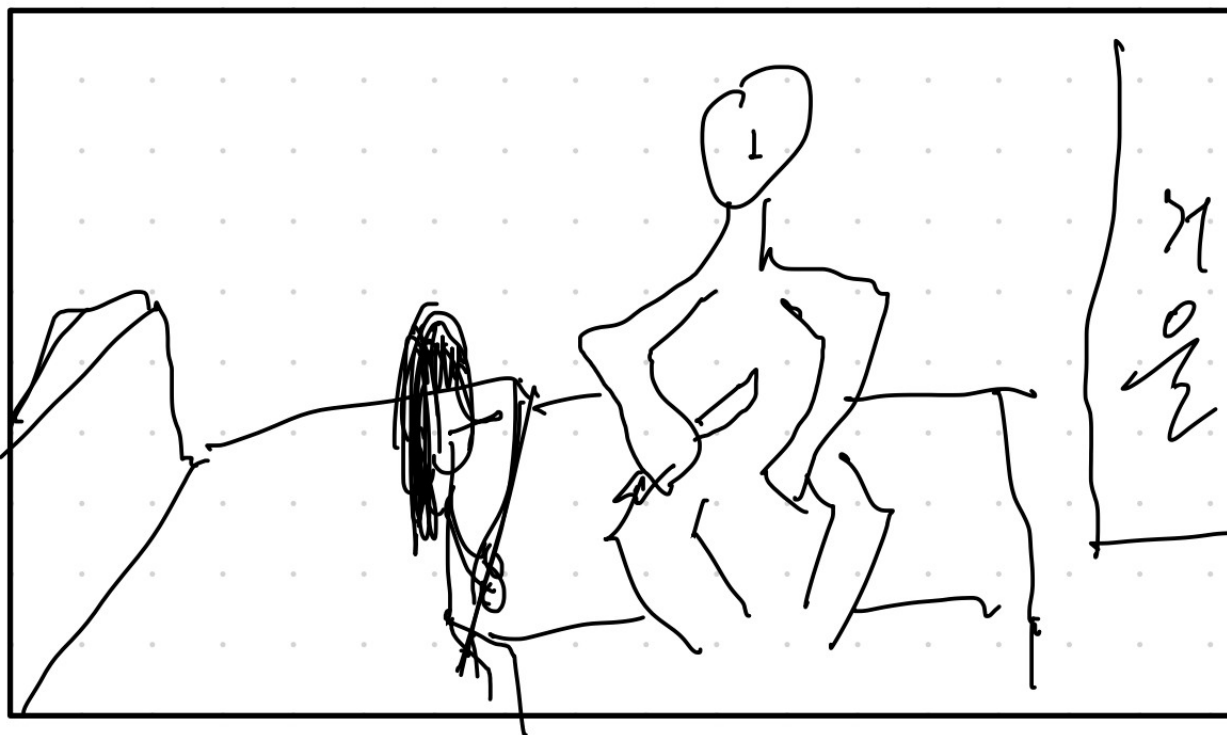
3-2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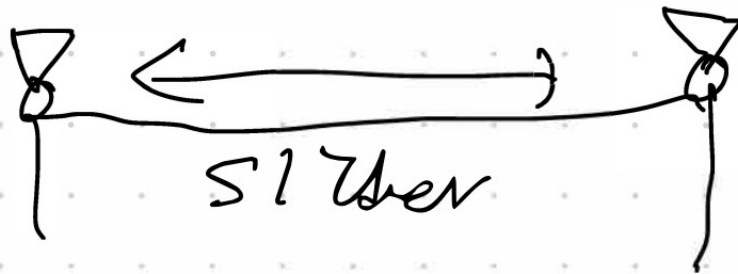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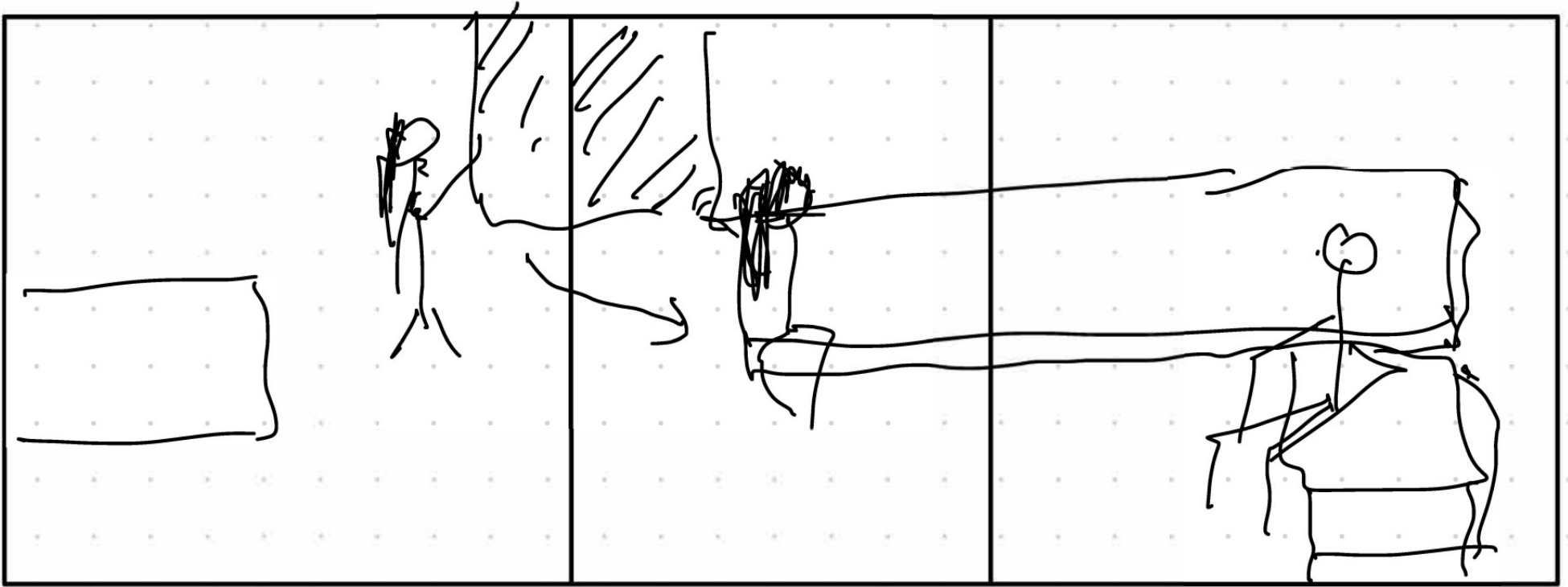
남자의 눈은 차분하지만,
어딘가 깊은 불안감과 긴장감이 서려 있
다.

남자
(칼을 쥐지 않은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
며) 앉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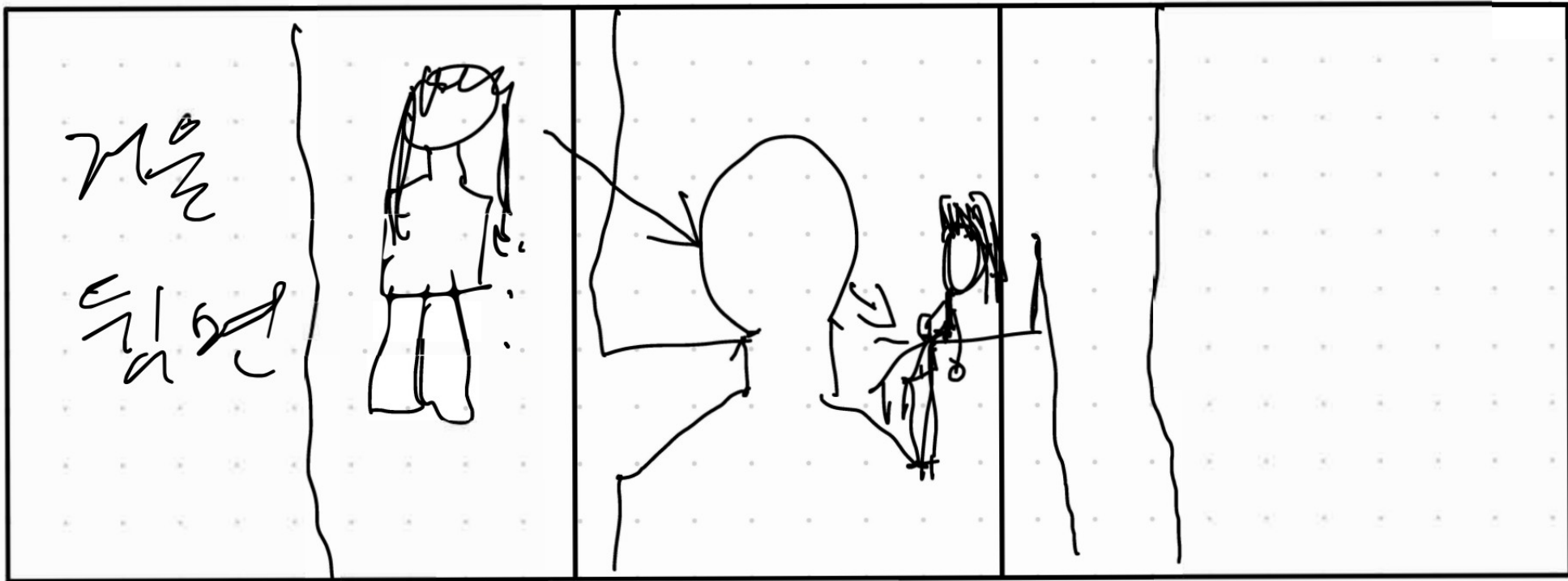


3-3



and F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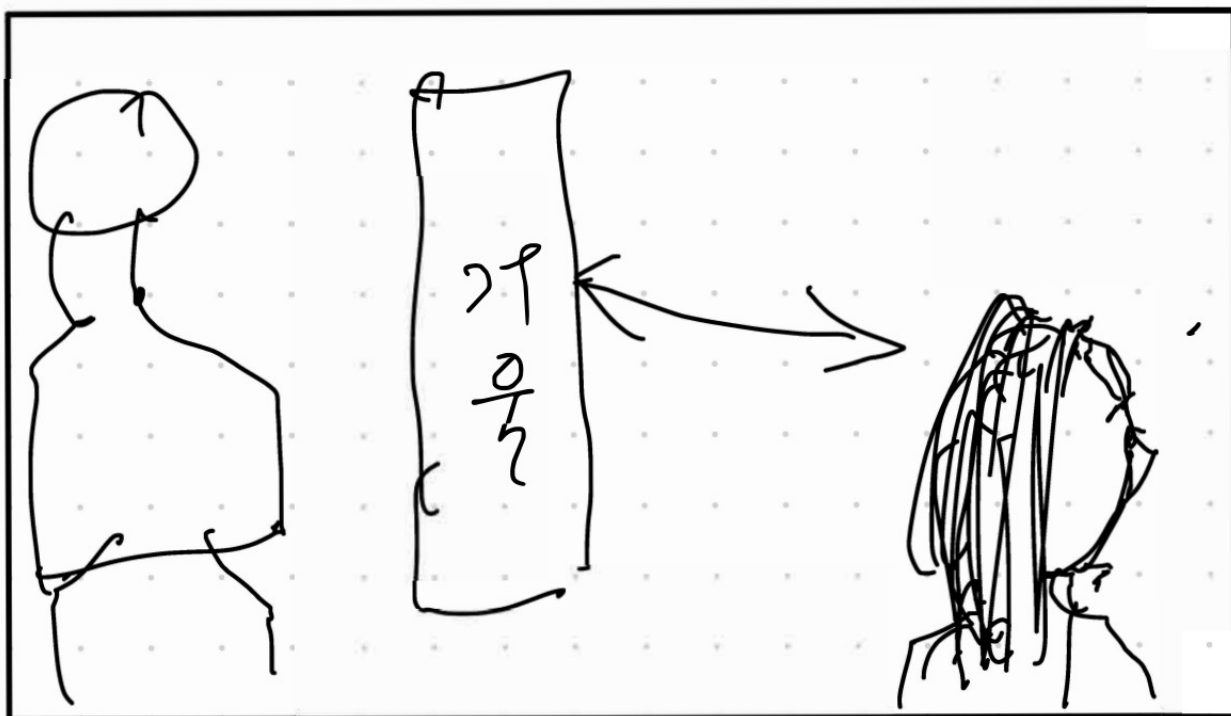
3-4



3-5

Sl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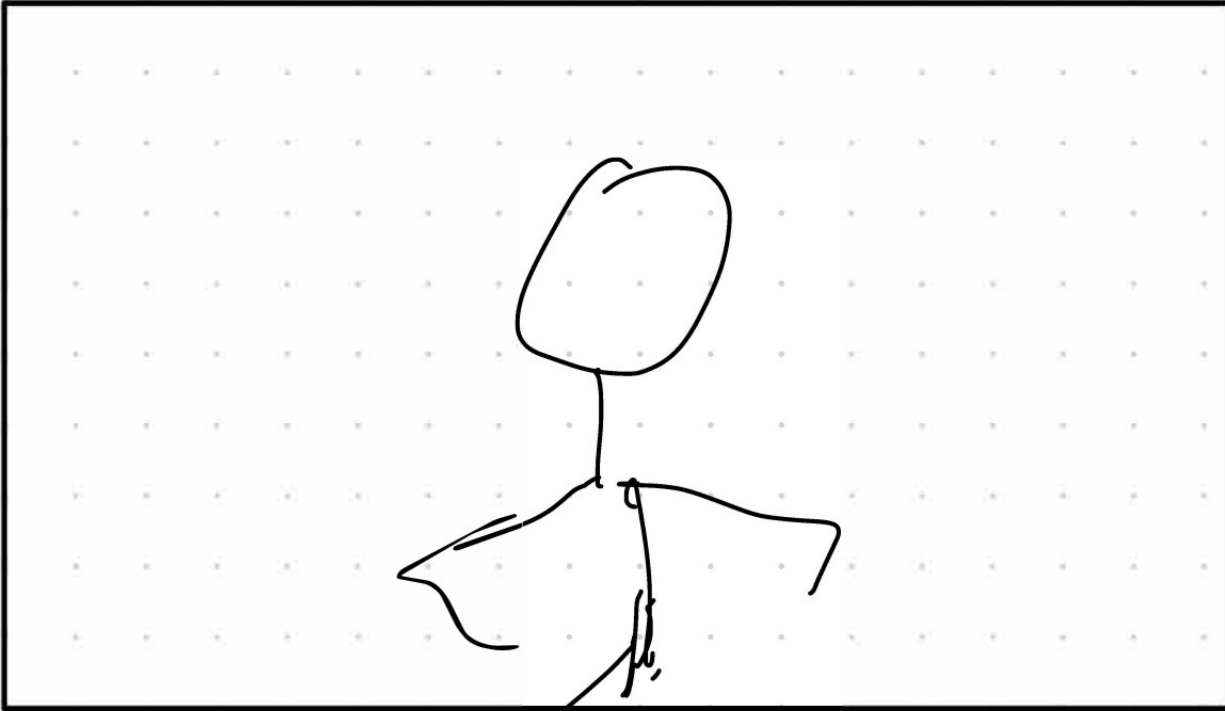
180도 회전성 슬라이더



가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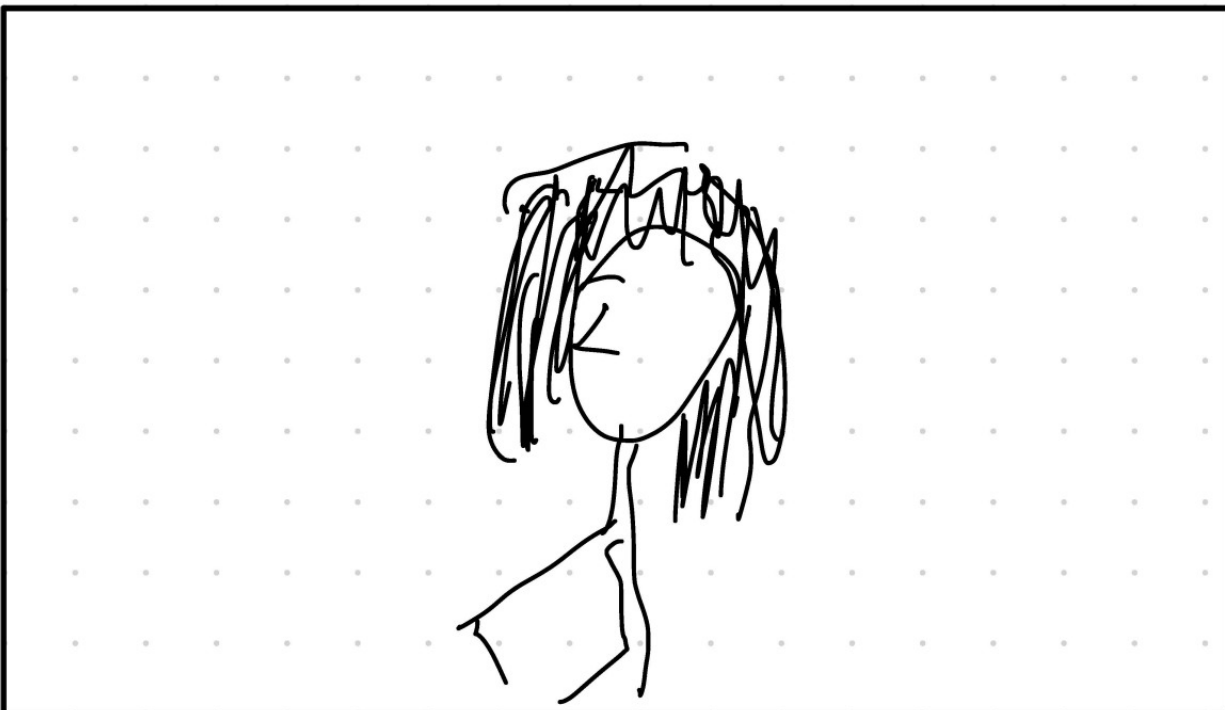
3-6

유리
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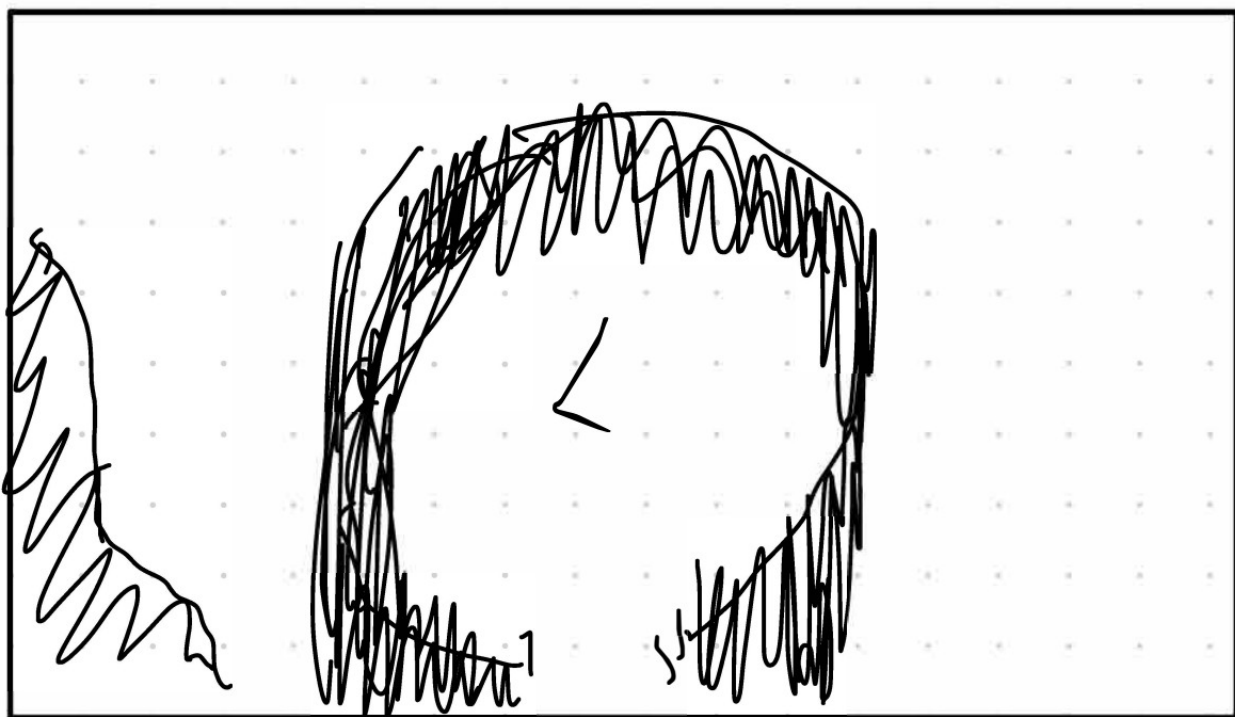
3-7

유리
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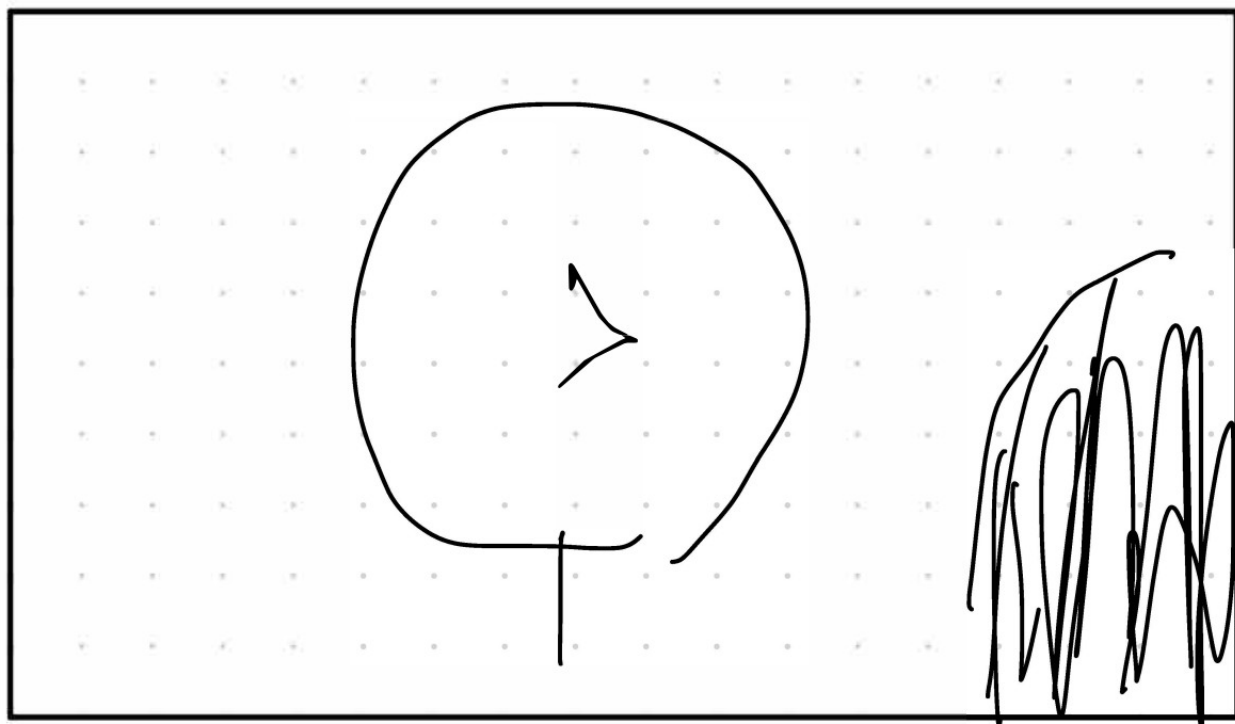
3-8

2/2/21
OTS + 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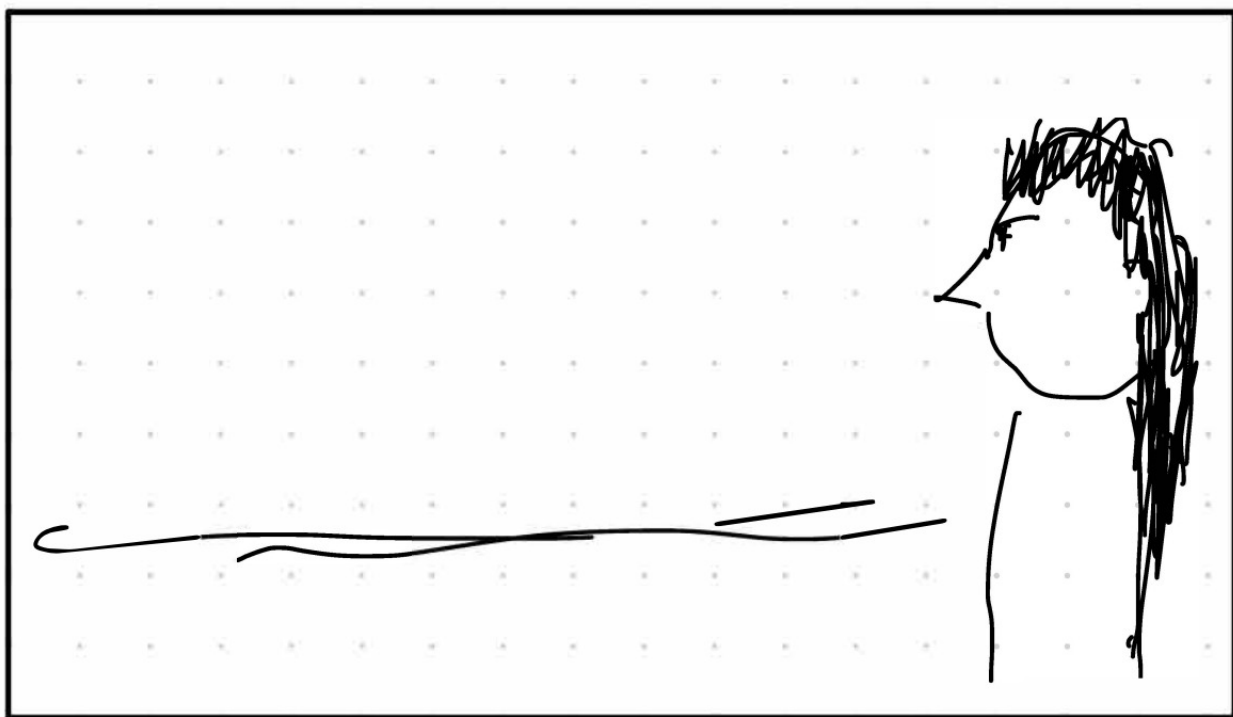
3-9

2/2/21
OTS + C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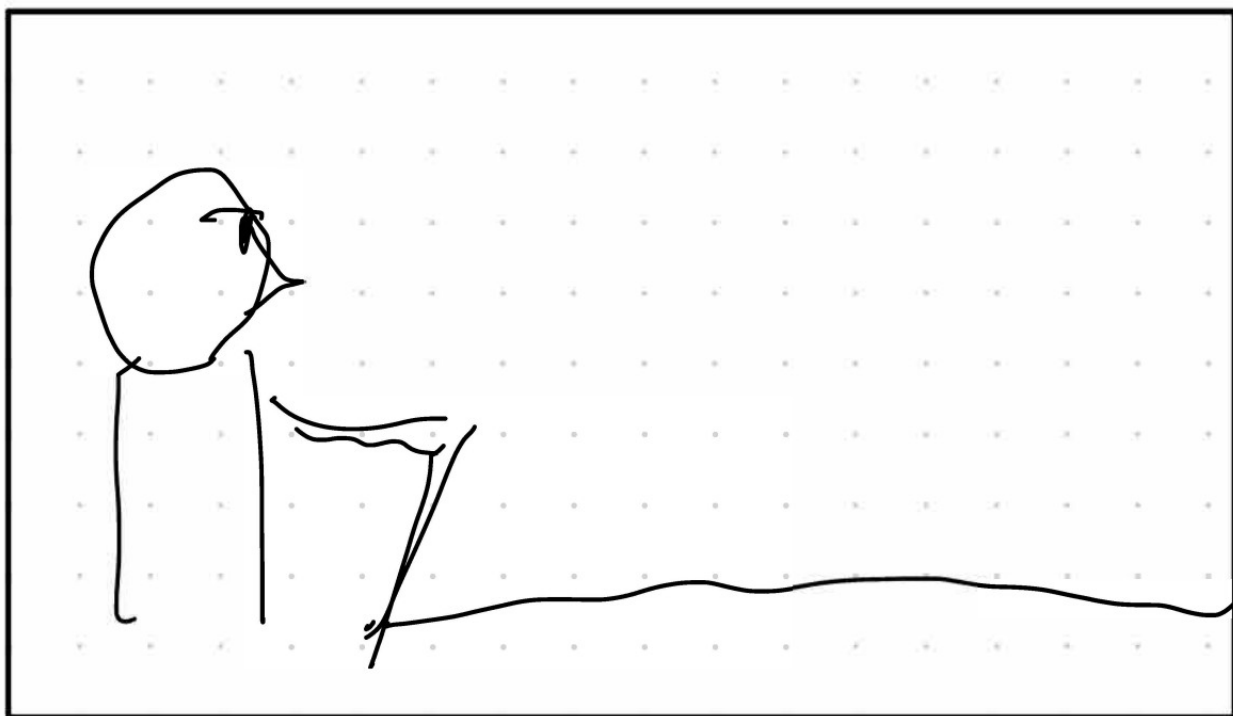
3-10

여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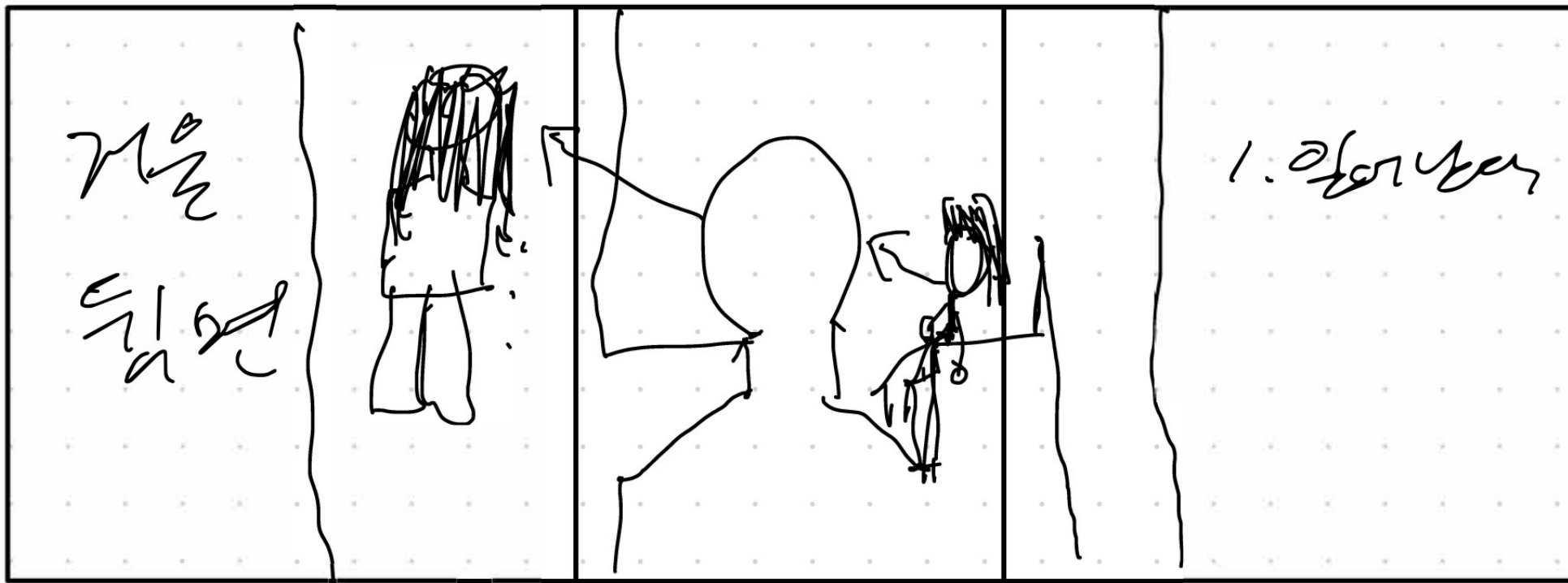
3-11

남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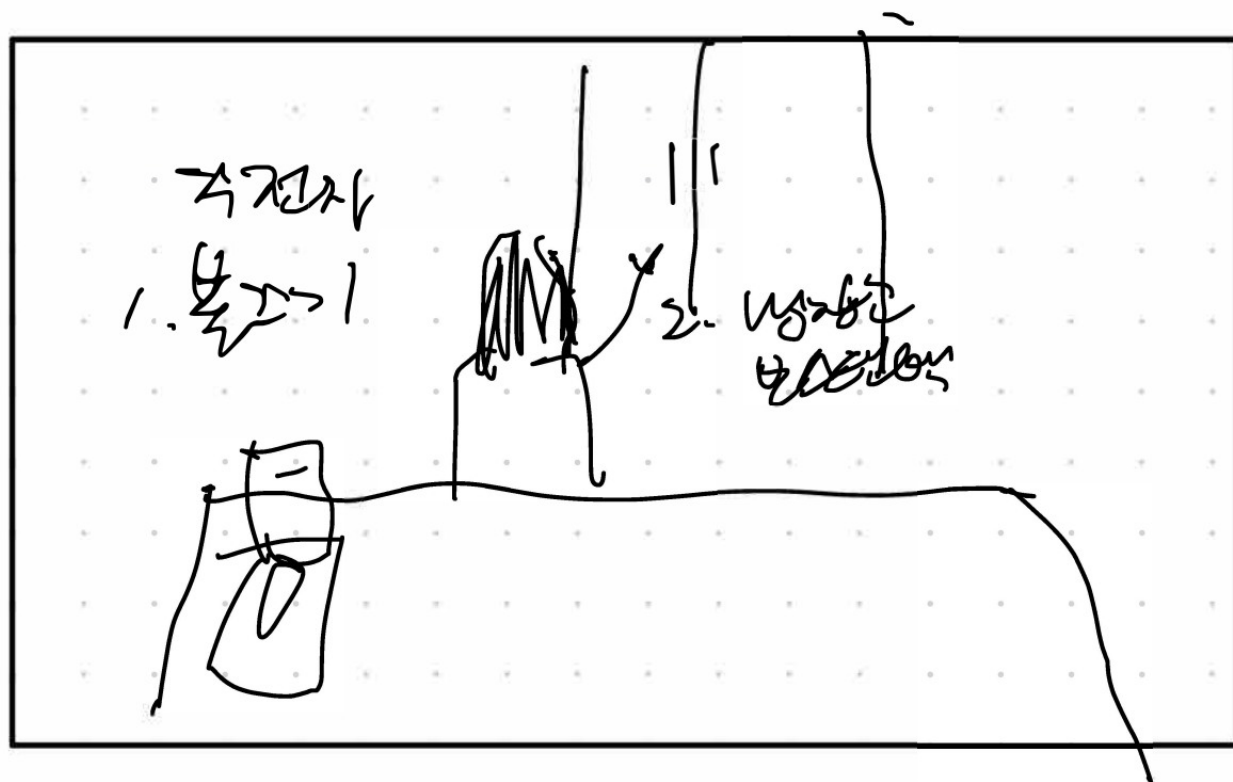
3-12

2. 700~750mm



1805 200~250mm

3-13



THE VANISHED SPIDER

FILM PRE-PRODUCTION BOOK



PRE-PRODUCTION BOOK